

## \* 해외교수 동정

IOWA 의대 의학교육학실에 1년 간 연구원으로 나와 있는 한 재진입니다. 이 곳에서의 일곱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 LIFE

저를 초청한 FAIMER 재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돌아 갈 날짜를 확정하여 비행기표 구입을 완료하라고 합니다. 또한 떠나는 일정이 계약기간 보다 빠르면 하루 당 80불씩 제한하고 해서 8월 30일을 귀국일로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연수 기간 후에 절대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후진국에서 연수 오는 프로그램 이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은 바로 계약 기간 직후 귀국률이 90% 정도라고 자랑(?)하는 것을 봐서 규정을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를 피하는 사람과 방법은 여전히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spring break 기간에 시카고에서 열린 FAIMER fellow 워크숍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워크숍은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FAIMER 재단의 Director of Education (의사이면서 교육학 석사더군요)인 Dr. William Burdick란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날아왔고 워크숍 장소는 미국 의학교육의 원조라 할 수 있는 UIC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의 의학교육학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fellow 10명 중에 5명이 UIC에서 연수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학 교육 각 분야의 교수들이 대거 포진한 아주 큰 규모의 department입니다. 1999년에 의학교육학과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학 석사 과정을 포함한 학문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department의 주된 활동입니다. 인도, 스리랑카, 네팔,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필리핀, 카르키즈스탄에서 온 fellow들이 모두 모였는데 정말 제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전문가이자 워크숍 전문가들의 열정과 기술과 호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워크숍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저번 때 UIC 교수 중 한 분(성함이 Ara Tekian인데 수년 전에 연대 의학교육학과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의 집에 모두 초청을 받아 레바논 뷔페로(이분의 태생이 레바논입니다)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색다른 장소에서 별난 사람들을 만난 경험당은... 다음에 귀국해서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 MEDICAL EDUCATION

이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는 2학년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전에 보내드린 전체 교과 과정과 학습 목표 등을 참고하시면 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병리학(9학점), 약리학(5학점), 미생물학(5학점)이 기초의학의 주된 과목이고 지난 번에 말씀 드린 대로 FCP III(7학점)와 IV(17학점)가 포진해 있습니다. (FCP III&IV는 다음번에 소개합니다) 그 외에 medical law(1학점) 과목이 있는데 모의법정 시간도 있더군요. 앞서 말씀 드린 세가지 기초 과목은 각 교실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각기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역사가 오래된 이 학교 각 교실의 역량과 전통이 지속되는 듯 합니다.

이 곳의 또 하나의 강점이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설비와 내용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기초 교실에서도 컴퓨터 공학을 심분 발휘하여 각 교실의 교육 자료(예를 들면 영장나게 많은 병리학 슬라이드 자료, 각종 미생물 검사나 실험의 실제 사진 자료 등)가 거의 네트워크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보충 및 반복하여 공부(이 곳에서 보니 기존의 실습 활동 중 상당 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되어도 아무 문제 없거나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각종 퀴즈도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 학생 평가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실제 교육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었습니다.

### SUGGESTIONS

보내주신 지난 3월14일의 저희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일사분란하게 계획을 세

우시고 의욕적으로 진행 하시는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멀리 이곳에서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관심 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아마도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하셔야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아 꼼꼼히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제 경험에 비추어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덕분에 오히려 제가 이곳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좀 튀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시고 참고할 사항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를 세 분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전체 교과 과정을 조율할 교과 과정 위원회 회의가 자주(특히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따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방정맞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세 소위원회의 사업 계획을 함께 보니까 타임 테이블과 사업 내용 중 에서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워크숍이 각 소위원회 별로 이루어지면 일정이 중복되거나 워크숍 내용이나 시행에서도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갖게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 거시적인(혹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업 위주로) 전체 사업 계획의 시간표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확립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워크숍의 전체적인 기획은 교육과정위원회나 의학교육실(고려 의대처럼) 혹은 별도의 테스크포스 팀에서 하거나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체 교과 과정을 세 분야로 나누셨는데 각 분야의 시간 배당이나 내용의 대략적인 분리가 된 것인가는 점입니다. 만일 아직 안되었다면 어느 시간 안에 이를 정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의견을 도출하는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대 의학 교육에 관계된 모든 교수님들께서 매 순간 함께 고민하며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할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2. 학장님 말씀에서 학생들이 self-learning과 e-learning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말씀하신 점에 좀 고무되어 떠오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 곳의 의학 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교육 소프트웨어 운용 및 개발은 미국 내에서도 앞서가는 수준입니다. (여기 의학교육학실의 반 이상의 인력이 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인력은 학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지원해 주실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학교나 병원의 좀 부족한 상황들(예를 들면 교수 인력, 기초 실험이나 자료, 혹은 임상 분야의 중례 부족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tool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의 공유(?) 내지는 컴 시뮬레이션 개발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의학 교육학실의 Computer engineering and Instructional designer 스태프 한 분이 겸직으로 회사(우리 식으로 하면 산학 협동 벤처 회사겠지요?)를 차린 상태에서 임상 실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ini-soft 라는 과정을 교육과 평가에 모두 이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학교나 병원(Mayo)에 판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미국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의 대가 한 분이 여기를 방문하여 강의와 토론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곳 교육 담당자들의 기본 생각 중의 하나가 아이오와 대학교 지역의 특성 상 학생이나 환자의 절대 대다수가 백인인 점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풍토병이나 AIDS에 대한 케이스가 부족한 점 등의 단점을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cover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이나 여기에서 현재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사용 언어의 이유 포함)이 되거나 적용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냥 '참 멋지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한편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점, 본교에 컴퓨터 계통의 학과와 office가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어 이 다음, 다음 마지막 소식지에 실을 M3&4의 소개 때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뵈겠습니다.

한 재 진 올림



#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웠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2-3)

발행인·한운섭 편집인·서석효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1 전화·02-2650-5707 팩스·02-2653-8891 제 4 호 <2005. 6>

##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 ◎전체 교수 하계 워크숍 개최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수의 역할 논의-



2005년 6월 18일, 19일 양일간 오코밸리 리조트에서 '2005년 전체 교수 하계 워크숍'이 열렸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수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100여명의 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의대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워크숍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 관련 학교의 현안 보고'(한운섭 학장), '의전 교육과정 개발과정 보고'(이순남 교수, 내과학교실), '미국 의과대학 시찰 보고'(박해영 교수, 생화학교실), 기초의학소위원회·기초임상통합소위원회·임상의학소위원회·PDS소위원회의 핵심 4개 소위원회 보고, '의전 제도안에서의 교수의 역할'에 관한 그룹토론 및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화기애애한 만찬에 이어진 단합대회에서는 전체 교수들이 모여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 마무리 예배를 끝으로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이 있었던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 ◎미국 의과대학 시찰 보고

#### -UCSF, Stanford, Iowa, Columbia, New York U. 등 벤치마킹-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박해영 교수와 한후재 교수(해부학교실)가 U.of Iowa에서 의학교육학을 연수 중인 한재진 교수(홍부외과학교실)와 합류하여 U.of Iowa의 교육과정을 집중 시찰하였다. 박해영 교수는 이번 기간 동안 동서부의 UCSF(U.of California, San Francisco), Stanford U., Cornell U., Mount Sinai, Columbia U., New York U. 의과대학을 시찰하였으며, 귀국길에는 한후재교수와 함께 Northwestern U.를 추가 방문하였다. 시찰 내용은 지난 5월 30일 교육과정위원회와 전체 교수 하계 워크숍에서 '미국 의과대학 벤치마킹 결과보고'로 발표되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찰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개발비로 책정된 국고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 \* 건축소식

의과대학 별관동(의학관 B동)이 지난 6월말 준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험대 및 연결식 의자, 음향 시스템, 가구, 컴퓨터 및 기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의학연구동 실험기자재 및 가구는 7월 8일 통합강의 종료 후 이전하였으며, 봉헌식은 8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각 층별 공간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층	학생 시설 배정 현황
10층	계단식강의실, 서브인턴실, 자율학습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매점, 복사실 등
9층	계단식강의실, OSCE실, 동아리실, 서브인턴실, 자율학습실
8층	계단식강의실, 대화의실, PBL실, PBL모니터링실, 매점/휴게실 등
7층	계단식강의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LAN장비실, 교수강의준비실, 기도실 등
6층	학생실습실 및 준비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매점/복사실, 경비실 등
5층	의과학연구소

## \* 의대 60주년 소식

의대 60주년 기념행사가 2005년 9월 9일(금)~10일(토)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중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여성과의학'이라는 주제 아래 의과대학 임상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방사선과, 신경정신과) 및 성인지의학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성인지의학 분야에서는 미국 콜럼비아 의과대학의 Marianne J. Legato 박사(MD)가 초청될 예정이다.

9월 9일(금)	
13:00 - 17:30	학술대회 <이화비전 '여성과의학'>
17:30 - 17:50	기념식
17:50 - 18:20	기념공연(합창)
18:20 - 18:40	의학관 B동 시찰
18:40 - 20:00	저녁만찬

9월 10일(토)	
9:00 - 18:00	의과대학 체육대회
16:30 - 20:00	이화의료인의 밤

후원 문의: 이희정(2650-5707, heejee77@ewha.ac.kr)

###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 ♣의대소식지는 분기별(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heejee77@ewha.ac.kr (담당:이희정)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의대소식지는 의대홈페이지(<http://medicine.ewha.ac.kr>)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이화여자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한 동창님, 학부모님 및 이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향후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대외협력업무 담당자:이희정(2650-5707)

### ◎ 2005년 6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모금 현황

일천만원	한운섭, 하은희, 이홍수, 박영요, 정우식, 최경규(이상 교수)
오백만원	박혜숙, 김영주, 김명래, 강병철, 김영철, 박시훈, 이주호, 오세관(이상 교수)
삼백만원	문병인, 김용재(이상 교수)
일백팔십만원	김광호(이상 교수)
일백만원	박은애, 김종오, 이진화, 유권, 박미혜, 최규복, 정성철, 정락경, 구혜수, 신규만(이상 교수), 이흥동(독지가)
오십만원	정성애, 김유경, 최희정, 이레나, 오지영, 심기남, 이귀용, 어은경, 김혜순, 임수미, 유은선, 장중현, 박성훈(이상 교수)
삼십만원	이령아(이상 교수)
총 액	일억이천오백육십만원

### ◎ 2005년 6월 현재 기숙사 건립 모금 현황

육천만원	의학과 23기 동창
일천오백만원	이경은(이상 교수)
일천만원	이화영, 허정원, 한후재, 조영주, 이경자, 박수연, 유경하, 정성민, 최혜영, 서정완, 이미애, 박혜경, 성연아, 정혜원, 이지수, 이지희, 정영해, 이창기, 김치호, 정화순, 최보원, 강은숙, 박영요, 성주명(이상 교수), 조종남(동창+학부모)
구백만원	박은애, 김종오, 이진화, 유권, 박미혜, 최규복, 정성철, 정락경, 구혜수, 신규만(이상 교수)
오백만원	이승주, 김경호, 박혜영, 이선화, 이시내, 최유원, 한종인, 하은희, 심경원, 한운섭, 박혜숙, 김승철(이상 교수)
사백오십만원	정성애, 김유경, 최희정, 이레나, 오지영, 심기남, 이귀용, 어은경, 김혜순, 임수미, 유은선, 장중현, 박성훈(이상 교수)
이백칠십만원	이령아(이상 교수)
일백팔십만원	김광호(이상 교수)
총 액	오억사천삼백만원

## \* 의과학연구소 부문

### ◎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9주년 기념 의과학연구소 FOAD(Fetal origin of adult disease) 심포지움 개최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이대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는 의과학연구소 FOAD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은 FOAD 소개(김영주 교수, 산부인과학교실), Fetal programming에서 태반의 역할(박수연, 해부학교실), 임신부의 유전 및 환경 요인과 유아의 아토피 질환(우소연, 미생물학교실), 자궁 내 발육지연아의 영아성장(박은애, 소아과학교실), 대사이상증후군의 태아기원(박혜숙, 예방의학교실), 임신 중 환경노출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하은희, 예방의학교실), Antioxidative vitamin and oxidative stress levels in pregnancy in relation to infant growth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홍주희, 예방의학교실)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FOAD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9층 실험동물실 오픈

실험동물실이 소독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동물반입이 200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동물실험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ewmrc.re.kr) 실험동물실 이용안내 절차를 숙독하고, 이용양식을 통해 실험동물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 \* 의과대학 새소식

### 1. 의과대학 소식

#### ◎이화여대 의료인 리더십 세미나 열려

지난 5월 9일 '이화여대 의료인 리더십세미나'가 김곡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화 단기 의료 선교의 어제와 오늘' (성주명 교수, 내과학교실), 'Practicing pediatrician influencing community' (안정옥 재미동창, 1973 졸), 'Christian leadership & medical professionals' (박혜원 교수, 리더십 개발 연구소 공동소장)로 진행되었다. 안정옥 동창(1973졸)은 현재 Private practice in pediatrics, California, U.S.A.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대동창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여성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가져

지난 5월 23일 낮 12시 목동 의과대학 학장실에서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최수경 학생(의예과 2학년)이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김병순 수여자를 비롯해 학장, 학생처장, 교무부장 및 양현종 교수(최수경 학생 지도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순 수여자는 매년 본교 의대와 법대에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매년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 ◎제 17차 의학교육 합동 학술대회 참여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임상의학교육을 주제로 '제 17차 의학교육 합동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한운섭 학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워크샵에는 총 7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 ◎제 1·2차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워크샵 열려

지난 6월 1일 목동 의과대학 대학원강의실에서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OSCE Station 개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OSCE 문제 출제요령 안내, 향후 일정 확인, 출제자의 준비사항 안내 등 문제출제 교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6월 24일에서 25일까지 산정후수 한화리조트에서는 '제 2차 OSCE 문항 개발 및 station 확정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OSCE 문항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샵은 출제문항 검토, station 확정, OSCE리허설 등 강도 높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약사국시위원회 관련

2005년도 제2차 의사국가시험 연구위원회 회의가 6월 1일 오후 6시 의과대학 학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의 고사 문제출제에 관한 세부사항, R형 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문제출제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문항평가 일정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6월 20일에는 내과계열 R형 문제출제위원 모임, 7월 15일에는 문항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1차 모의 고사는 10월말에, 2차는 1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 ◎2005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안내

의예과 2학년	9월 1일 - 12월 9일
의학과 1학년	8월 22일 - 12월 9일
의학과 2학년	6월 20일 - 12월 9일(방학: 7월 11일 - 8월 15일)
의학과 3학년	8월 8일 - 12월 17일
의학과 4학년	5월 16일 - 9월 24일

## 2. 교수 및 의료원 동정

### (1) 교수 동정

#### ◎정년퇴임 교수

병 원	전 공	이 름
동대문	외과	최용만(8월31일자)
동대문	비뇨기과	권성원(8월31일자)

#### ◎신임 교수

병 원	전 공	이 름
동대문	내분비내과	이혜진(7월1일자)
목 동	호흡기내과	문진욱(7월1일자)
동대문	신장내과	류동열(9월1일자)

#### ◎오세관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오세관 교수(뇌신경과학교실)가 5월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오교수의 논문은 'Changes of [3H]MK-801, [3H]muscimol and [3H]flunitrazepam binding in rat brain by the prolonged ventricular infusion of transformed ginsenoside'(2004.12 'Neurochemical Research')으로 고려인상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상하였다.

#### ◎김영후 교수 한국의과학 신기술개발 및 발명품상 수상

김영후 교수(정형외과학교실)가 지난 14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 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의과학 신기술 개발 및 발명품상'을 수상했다.

#### ◎최병욱 교수 "Man of the Year" 선정

최병욱 교수(신경과학교실)가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서 "Man of the Year"에 선정되었다. ABI는 최고수의 탁월한 연구업적 및 활발한 저술 활동과 한국회개난치성질환연합회의 이사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ABI는 마르퀴즈 후즈후, 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이다.

#### ◎권성원 교수 국민훈장 동백장 서훈

권성원 교수(비뇨기과학교실)는 지난 7월 제33회 보건의 날 및 제 57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유공자 포상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했다. 권교수는 진료와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전립선관리학회 회장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무료검진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동백장을 받게 됐다.

#### ◎[하계]아침기 교수 교통사고로 별세

아침기 교수(재활의학교실)가 지난 4월 10일 교통사고로 별세하였다. 12일 목동 의과대학 김곡길홀에서는 이교수 추모 예배가 열렸으며,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교수는 재직 동안 타인의 귀감이 되는 연구 활동과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많은 존경을 받아왔다.

### (2) 의료원 동정

#### ◎본교 목동병원, 의료기관평가 상위10대 우수병원 선정

#####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와 꾸준한 시설투자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에서 본교 목동병원이 상위 10대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본교 목동병원은 환자중심의 진료체계와 꾸준한 시설투자에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에 선정되었다.

#### ◎네팔 심장질환자 3명 한국 초청 무료수술

##### -심장혈관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수술 끝내, 인술 실현-

목동병원에서 네팔 심장질환자 3명을 한국에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 10일 입국한 버켓을 비롯한 네팔 심장질환자 3명은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질환이 심한 버켓씨가 12일 제일 먼저 수술을 받고 이어 수니따와 카밀라도 16일, 17일 차례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이대목동병원 박시훈 교수(내과)와 안재호 교수(흉부외과) 팀이 맡았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확장 개소식 가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5월 17일 정형외과 확장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 \* 동창회 소식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는 "Recent Advances in Interventional Cardiology: Global Revascularization" 강연(권기환 교수, 내과학교실), 이은정 회원(46회,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전임강사)과 성연아 교수(34회, 이대목동병원 내과)의 논문에 연구비 및 증서 수여, 동창회에서 관리해온 장학금 전액(225,136,154원)의 운영 이관 순서, 장학금을 기부한 한영지(11회, 한영자가정의학과의원장)회원 과 유박영(23회 청박병원장)회원에 감사장 수여, 총동창회 선정 물해의 이화인상 대상자 조종남(24회 조운희산부인과의원 원장)회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제2부는 부서별 보고, 2005년도 예산안 통과, 제15대 집행부 출범, 신임회장 김화숙(20회 김화내과원장)회원의 인사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인 윤석원(25회) 회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31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활약하였다. 4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회원은 무료건강검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금천구 한국여자의사회주최로 5월1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14회에 걸쳐서 주민 건강 강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강사로는 조종남(24회), 김영주(37회), 권계량(41회), 이지숙(43회) 등 우리 동창들이 활약하고 있다.